화승이 그린 불보살·나한벽화의 명작

사찰벽화 명작순례

⑫ 영천 백흥암 극락전 상벽의 석가오존도와 나한벽화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상벽의 석가오존도와 나한벽화.

벽화 그리기에 안성맞춤인 상벽

궁궐이나 사찰 법당 같은 권위와 격식이 요구되는 목조 건축에는 높이의 추구가 필수적이다. 기둥과 지붕 사이에 받침 장치를 마련해서 건축 높이를 더욱 확장하면서 갖은 예술적 단청장엄을 베푼다. 그 받침 장치를 '공포(栱包)'라 부른다. 공포는 가로재인 '첨차'와 그 위에 수직으로 올린 세로재인 '살미'의 중첩적 구조다. 공포를 층층이 올릴수록 높이는 점차 상승하고, 앞뒤 폭도 점차 확장된다. 기둥 벽체 바깥으로 나간 첨차와 살미를 바깥으로 나간 받침 목이라는 의미로 '출목(出木)'이라 한다. 출목은 기둥 벽체를 기준으로 법당 안팎으로 대칭적인 모습을 보인다. 통상 바깥으로 빼낸 외출목수보다 내부로 빼낸 내출목수가 하나 더 많다. 바깥으로 외3출목이면 내부로는 내4출목인 식이다. 내부로 한 층 더 빼낸 출목은 법당 내부 높이를 더 높여 웅장한 효과를 연출한다.

백흥암 극락전의 경우 특이하게도 외출목수와 내출목수가 둘 다 3출목으로 같다. 내3출목 위에 바로 장여와 내목도리를 올리고, 그 위에 상벽을 쳤다. 네 번째 출목 높이를 상벽의 높이에 통합했다. 그 덕에 길고 넓은 상벽이 마련됐다. 법당 천정 아래 사방 가장자리에 마련한 한 층 넓은 상벽은 불교 장엄미술의 화면으로 안성맞춤이었다. 백흥암 극락전 상벽에 그린 탁월한 불교미술은 특별하게 마련한 상벽의 바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무릇 미술의 명작은 〈논어〉에 나오는 구절처럼 '회사후소(繪事後素)'의 원리에 따른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바탕을 희게 마련한 후에 한다.

백흥암 극락전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벽화들은 천정 높이의 상벽에 베푼 그림들이다. 법당 내부 상벽엔 모두 19점의 벽화가 남아 있다. 상벽의 벽화 19점 중 18점이 '나한도'다. 나머지 한 점이 '석가오존도'다. 상벽에 그린 벽화에서 능수능란한 운필과 채색 능력을 갖춘 화승의 역량이 한눈에 드러난다.

당대 탁월한 화승이 단청벽화 완성

백흥암 극락전은 임진왜란 때 왜구의 방화로 소실한 것을 1643년에 중건한 건물이다. 상량문 기록에는 그로부터 40년 후인 1673년에 단청과 벽화를 장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현재의 극락전 단청과 벽화는 1817년, 즉 200여 년 전의 것으로 확인된다. 그 같은 사실은 백흥암의 보화루 누각에 걸려 있는 '백흥암극락전 단확공덕기'(1818년) 현판 기록에 남아 있다.

1816년 당시 백흥암의 수좌인 구련 스님이 여러 대중을 모아 '대법당(극락전)에 단청을 볼 수 없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동전과 미곡을 내놓자 무자생과 갑오생 두 동갑계에서도 선뜻 성금을 냄으로써 단청공사를 시작하였다. 총괄 기획은 전 총섭 총언이 맡았다. '단확공덕기'에서는 단청벽화를 그린 화승과 완성한 벽화를 두고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찬하고 있다.

"두루 인연들이 만들어져 북송대의 뛰어난 화가 용면(龍眠)과 같은 화사(畫師)를 맞아 수개월 만에 벽화를 완성하니 '서촉의 진채(眞彩) 요 장승요(張僧繇)의 묘기'라 하겠다."

문장 속 '용면'은 소식, 미불과 함께 11세기 북송대에 이름을 떨친 백묘화 화가 이공린의 호다. '장승요'라는 사람은 남북조시대 양나라의 전설적인 화가로, '화룡점정' 일화의 주인공이다. 그만큼 당대의 탁월한 화승이 백흥암 극락전의 단청벽화를 완성했다는 의미다. '단확공덕기' 찬문에서 중국의 미술 역사에 불세출의 이름을 남긴 이공린과 장승요에 비견한 화승은 과연 누구실까?

공주 마곡사를 중심으로 불모의 맥을 이룬 남방화소의 금호당 약효, 문경 사불산 대승사 중심의 사불산파의 신겸, 양산 통도사를 중심으로 활약한 임한, 전남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붓의 신선' 의겸 스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벽화에 불화 그리는 고도의 집중과 섬세한 필력, 철선 운용 능력 구사 채색에서도 불화 기법 그대로 구현 대승사 사불산파 화승 신겸의 필력

1818년 기록인 백흥암의 '단확공덕기'에는 두 명의 양공(良工) 이름을 올리고 있다. 퇴은 신겸, 선덕 지연 두 분이다. 퇴은 신겸을 수화승으로 이름을 올렸다. '퇴은 신겸'은 누구실까? 사불산파의 중심에 계신 '퇴운 신겸'과 자연스레 겹쳐진다. 한자 법명도 같고, 활약한 시대와 공간도 겹친다. 퇴운당 신겸 스님은 불화 그린 화승이면서 대선사였다. 문경 사불산 대승사 중심으로 불모의 맥을 형성한 사불산파의 대표적인 화승으로 추앙받았다. 1780년대부터 1830년대까지 붓질을 이은 것으로 알려진다. 1828년에 그린 의성 고운사 '사십이수관음보살도'에 신겸 스님의 화승으로서의 역량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백흥암 극락전의 벽화를 신겸 스님이 그렸다면 '단확공덕기'의 찬문이 공치사가 아님을 이내 수긍하게 된다.

그런데 상벽의 석가오존도 옆에 있는 화조도의 하단에 남긴 묵서 기록은 다른 사실을 추가한다. "본사(은해사) 화원 지연 등 5명과 석남사 화원 포진, 해인사 화원 우희 등 3명이 함께 동참하여 가경 22년(1817년) 4월에 단청벽화를 완성하였음"을 밝혔다. 이 같은 기록을 토대로 하여 정리해 보면 백흥암 극락전의 단청벽화는 1816년에 구련 스님이 발원하여 무자생과 갑오생 두 갑계에서 충당금을 내서 신겸 스님을 수화승으로 하고 은해사, 석남사, 해인사 화원들이 동참하여 1817년 4월에 단청벽화를 마무리했음을 알 수 있다.

18점의 나한벽화에 43분의 나한

백흥암 극락전 상벽은 나한의 진경이 펼쳐져 있다. 동서남북 사면의 상벽에 모두 18점의 나한도가 빙 둘러 연속한다. 남측면 상벽에 11점, 좌우 동서측면에 각 3점씩, 북측면 상벽에 대형화면 1점, 그렇게 해서 모두 18점이다. 포벽의 불보살도, 나한도를 포벽마다 독존으로 그렸다면 상벽의 벽화들은 2, 3명씩 무리 지은 군상으로 그린 점이 서로 대비된다. 가로로 긴 하나의 화면에 많게는 8분을 봉안한 경우도 있다. 화면 하나의 평균 크기는 대략 세로 65㎝, 가로 55㎝ 정도다. 최대 화면은 서측면 상벽의 3점 중 중간에 있는 화면으로 크기가 세로 65㎝, 가로 216㎝에 이르는 대형화면이다. 화면에는 7분의 나한이 군집해 있다. 18점의 화면에 등장하는 나한 수는 모두 43명이다. 모든 나한은 늙고 굽은 노거수와 함께 그렸다. 고요와 침묵에 길들인 형상이 서로의 거울을 보듯 닮았다. 노거수 표현이 다양하다. 붉은 꽃이 만개한 나무도 있고, 향나무처럼 푸르른 나무도 있고, 매화와 복사꽃이 흐드러진 무릉도원 느낌을 자아내는 화면도 있다. 특별하게는 등이 휜 나한의 신체 곡선 따라 굽은 나무도 있다. 얼마나 오래 한 자세를 유지하며 선정에 들었던 것이었을까? 나무마저 나한의 수좌 틀고 앉은 자세대로 자랐다. 노거수가 나한이고, 나한이 노거수다. 나무 위로는 성스러운 구름이 자욱하게 퍼져서 고요하고 청정한 수행공간을 엿보게 한다.

나한들의 몸짓이나 표정도 천태만상이다. 위로 손을 뻗어 붉은 태양을 움켜쥔 분이 있는가 하면 두 팔을 들어 올려 개구쟁이 표정을 짓는 익살꾼도 있다. 가운데에 책 한 권을 두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무 위에 걸터앉아 깊은 삼매에 든 분도 보인다. 나무에 기대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턱에 여의를 받치고는 생각에 잠겨 있기도 하고, 과일 공양을 받기도 한다. 등을 긁고 있거나 상대방의 귀지를 파내주는 파격적인 장면도 있다. 옷차림, 헤어스타일, 손에 쥔 지물 등이 각양각색이고 어느 하나 정해진 틀이나 규범 없이 하나같이 자유분방하다. 화면에 베푼 진채 색감도 중간색으로 온화하고 다채로움으로 풍성하다. '단확공덕기'에서 '서촉의 진채'라고 찬한 대목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벽화에선 보기 힘든 과히 색채의 향연을 펼쳤다.

석가오존도는 〈무량수경〉 설법장면

극락전 벽화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화면은 북측면 향우측 상벽에 그린 석가오존도다. 석가모니불께서 설법하는 장면을 주요 등장인물로만 개략적으로 표현했다. 극락전에 그린 석가모니불 설법 장면임을 고려할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부근 영축산에서, 법장 비구가 48대원으로 성취한 아미타불과 극락정토를 설명하신 〈무량수경〉, 또는 〈아미타경〉 설법장면으로 짐작할 수 있다.

화면에 등장하는 존상은 보현보살-석가모니불-문수보살 삼존과 가섭과 아난, 그리고 타방불 여섯 분이 다다. 두 보살과 제자, 타방불이 구름을 타고 하강하듯이 구름 꼬리를 뒤로 길게 늘어트린 장면이 인상적이다. 붓질이 섬세하고 불화의 법식을 벽화에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어 경이롭다. 부처님과 보살, 두 제자의 상호 및 의습 표현에서 불화를 그려내는 고도의 집중과 섬세한 필력, 흐트러짐 없는 선의 운용 능력이 구사됐다. 불화 기법 그대로다. 색을 입힌 채색원리도 불화 그 자체다. 발만 보아도 한눈에 사자임을 알 수 있다. 이 벽화에 당대에 특출했던 신겸 스님의 필력이 담겼음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백흥암 극락전 상벽에 한 국산사 나한벽화의 정수와 또 하나의 불화가 있다. 벽화라 쓰고 불화라 읽는다.



노재학 작가



운성스님과 함께 떠나는 스리랑카 명상순례 8일
치유와 깨어남의 멘토 운성스님과 명상참선을 함께 하며, 불교성지 참배,
현지 위빠사나 수행센터 명상체험이 있는 멋진 순례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출발일 : 11월25일 출발~12월 02일 도착
▶ 동참금 : 299만원
■ 일정: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오대산과 조주, 임제선사 7일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 임제선사 순례
출발일 : 10월14일 출발~10월20일 도착
▶ 동참금 : 18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10월14일 출발~23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6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10월19일 출발~24일 도착
▶ 동참금 : 169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5일
보로부두르 대탑은 세계최대의 불탑으로 462개의 벽면에
부처님의 생애가 조성되어 있으며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54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도 조성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11월02일 출발~11월06일 도착(5일간)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9월02일 출발~17일 도착
▶ 동참금 : 590만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출발일 : 9월04일~9월08일(5일간)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0일
11월24일 출발~12월03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인도 7대 성지순례, 아잔타석굴 13일
출발일 : 10월20일~11월01일(13일간)
■ 일정: 인천-델리-아잔타석굴-엘로라석굴-산치대탑-아그라-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영축산-보드가야-바라나시-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미얀마성지순례 6일
12월01일 출발~12월06일 도착(6일간)
■ 일정: 인천-양곤-바간-헤호-양곤-인천
▶ 동참금 : 문의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